

K-컬처·실감 콘텐츠... 광주 ‘핫플레이스’ 각광



광주 남구가 운영 중인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가로 42m, 세로 9m 규모의 초대형 곡면 LED 디스플레이로, 첨단 디지털 기술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결합한 실감형 콘텐츠를 송출하며 복합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남구청사에 설치된 미디어월 전경.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융합한 실감형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붙잡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로 42m, 세로 9m에 이르는 초대형 곡면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공공 목적 광고와 구정 소식, 미디어아트, 가족 영상편지, 실시간 재난 정보 등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며 단순한 옥외 전광판을 넘어 문화와 소통, 안전을 아우르는 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K-컬처와 첨단기술의 융합

미디어월의 핵심 콘텐츠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보유하고 있는 ‘K-컬처 스케이’ 연계 고품질 영상이다.

K-컬처 스케이에는 국민과 한국을 찾은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체험 공간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와 인천국제공항에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K-컬처 스크린, K-컬처 뮤지엄, K-컬처 아트랙션 등 서로 다른 형식의 콘텐츠가 선보여지며 수많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남구는 지난 4월부터 콘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 같은 콘텐츠를 광주 시민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으며, 오는 12월까지 총 15편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부·콘진원 보유 영상 ‘눈길’

이순신 해전·지역 광고 등 다채

시민 만족도 86%...활성화 효과

지역경제·문화 선순환 구축 목표

김병내 청장 “시민 소통 창구로”



백운광장 미디어월의 영남권 대규모 산물 화재 공익광고(위)와 인터랙티브 영상 시민참여 모습.

7월 이후 공개된 작품만 해도 ▲승리의 바다 ▲타임워프, 시간을 달리다 ▲검은 토끼의 모험 ▲상상의 바다 ▲더 키네틱 등 11편에 달한다.

‘승리의 바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상 전투 장면을 1인칭 시점의 입체 영상으로 구현해 관람객을 전장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타임 워프, 시간을 달리다’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거북선을 타고 광화문의 과거·현재·미래를 넘나드는 스토리를 담아 새로운 몰입감을 선사한다.

‘검은 토끼의 모험’은 토끼 캐릭터가 지구별을 여행하는 판타지 콘셉트로 제작돼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상상의 바다’는 해양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장면을 4D 기술로 담아내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각 콘텐츠의 상영 시간은 2초에서 4분 사이로 구성돼 있으며 시기별로 특화된 영상도 더해진다. 10월1-9일 한글날 주간에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형상화한 ‘세종대왕의 날’, 명절에는 추석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송출한다. 앞으로도 설날,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마다 특별 콘텐츠를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공공 목적 광고와 시민소통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2023년 2월부터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30분 가동되고 있다. 편성 내용은 ▲백운 호랑이가 시간을 알려주는 실감 콘텐츠(2분) ▲푸른길 브릿지와 연계된 인터랙티브 영상(18분) ▲가족 영상편지(3분) ▲구정 홍보와 공공 광고(27분) ▲지역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10분) 등이다.

운영 시간과 공공 목적 광고 수요에 따라 송출

간격과 편성 내용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시민 소통을 결합한 참여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은 주민들이 평소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을 영상으로 제작해 송출하는 콘텐츠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정서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남구의 주요 행사와 복지 정책, 구정 소식은 물론이고 타 지역·기관의 공공 목적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대풍·대형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실시간 재난 경보 창구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도 안전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월이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시민 안전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만족도와 활성화 효과

남구는 미디어월 운영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응답자 1천84명(관내 주민 1천260명, 동·서·북·광산구 주민 394명, 광주 외 지역 190명) 가운데 1천504명(86.4%)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미디어월이 백운광장 활성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천14명(55%) ▲조금 그렇다 623명(33.8%) ▲보통이다 156명(8.5%) ▲그렇지 않다 36명(2%)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

(0.8%) 순으로 전체 응답자 중 1천637명(88.8%)이 미디어월이 백운광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콘텐츠 선호도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디어아트’가 1천231명(3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인터랙티브’(24.2%),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20.2%), ‘구정 홍보’(10.5%), ‘공공 목적 광고’(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미디어월을 예술성과 정보 전달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경제와 문화의 선순환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단순한 대형 스크린에 머물러 않는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공공 광고, 안전 정보 제공을 결합해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남구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와 협업을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들의 작품을 발굴해 백운광장을 ‘사람과 문화가 순환하는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K-컬처 콘텐츠와 지역 고유 스토리를 결합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려 미디어월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백운광장은 더 이상 단순한 교차로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 시민이 만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콘텐츠와 주민 중심소통을 강화해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주서학 기자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마감
10.15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인회 접수 인정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은행**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정정보요)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상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수 4점 이내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심사발표 2025년 10월 23일(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자상(예정) www.kjdaily.com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시상 내역

- 1.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최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2.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메달
 -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메달
- 3.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배

*초대작가: 합선 15점 이상 인자(대상 6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5점, 특선4점, 입선2점)는 본 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추대한다.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요망)

기타 사항

-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작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을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 함.
 - 초대작가 작품 e-mail 제출 (cjkgam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